

사회적기업도 '예향 광주' '농도 전남'

광주 90곳중 31곳 문화예술, 전남 99곳중 44% 농특산식품 분야

광주·전남은 사회적기업도 '예향 광주'·'농도 전남'이었다. 광주는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전남은 농특산식품 업종이 두드러졌다.

20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및 예비 등 189개의 사회적기업이 지정, 운영 중이다.

광주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7곳과 예비 사회적기업 1곳, 광주형 예비 사회적기업 62곳 등 총 90곳이다. 광주시는 6월 말까지 예비 사회적기업 20곳을 더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은 고용노동부 인증 26곳과 예비 2곳, 전남형 예비 71곳 등 총 99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이들 189곳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은

'예향 광주', '농도 전남'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광주는 문화예술교육 업종이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특산식품 업종이 22곳, 서비스 12곳, 환경 10곳, 제조 9곳, 복지·건강 6곳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문화예술분야 창업이 활발했다. 지난해 12곳, 올해 17곳이 문을 열었다. (사)필름이자의 지역문화 영상아카이브 사업, (사)전통문화연구회 열우의 창작 타악 공연, (사)금계전통문화진흥원의 한문학 번역, (사)다문화가족복지회의 다문화이주여성 원어인 강의 등이 대표적이다. 또 홀더장애인직업재활센터·광주지역장애인복지협회 광산구지부·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의 사회성을 연계한 커피전문점 운영도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서구와 남구가 각각 20곳, 북구 19곳, 광산구 18곳, 동구 13곳이었다. 지난 2008년 7곳을 시작으로 2009년·2010년 각각 5곳, 지난해 34곳, 올해 39곳이 문을 열어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남은 농특산식품 분야가 44곳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17곳, 서비스 14곳, 제조 12곳, 환경 8곳, 복지·건강 4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99곳에서는 984명이 일을 하고 있다.

광역시 (사)미성질품공예문화원의 짚풀공예, 고흥 (농)에덴식품의 친환경 경석류, 화순 (사)화순사랑의 삼배, 장흥 (주)정남진편백사업단의 편백추출물, 영암 (농)당산식품의 전통장류, 무안 연반(주)의 연 관련 식품, 진

도 한국진돗개보존연합회의 진돗개 공연 등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이다. 또 슬로시티인 신안 증도·완도 청산도·담양 창평은 슬로푸드와 민박 체험을 상품화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목포·순천·나주에는 각각 9곳, 화순 7곳, 장흥·무안 각각 5곳 등이 선정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 1곳에서 2008년 10곳, 2009년 7곳, 2010년 20곳, 지난해 25곳, 올해 36곳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과 관광·문화예술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이 많다"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 사원 가족들이 20일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에서 열린 가족 초청 행사에서 마술쇼를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엄마·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광주신세계 '사원 가족 초청 일터 체험행사' 큰 호응

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가 20일 '사원 가족 초청 직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사원 가족 초청 프로그램'은 광주신세계에 근무하는 사원 자녀를 초청해 엄마·아빠가 일하는 곳을 직접 둘러보고 함께 일터를 체험하는 이벤트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 가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직장체험 행사와

함께 마술 쇼 관람 및 직원들간 상견례를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유스퀘어 2층에 위치한 프리미엄 뷔페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직원 복지와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원 어린이집과 사원 전용 커피 전문점 입점부터 직원 워크샵, 사원 자녀 아동 초청인형극 등 다양한 이색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해 기업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창현 광주신세계 대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고객에 대한 미소로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광주신세계를 찾아주시는 지역민들에게 친절하고 웃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휴대폰·스마트·LTE폰 삼성전자 판매량 3관왕

삼성전자가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전체 휴대폰은 물론, 스마트폰, LTE폰 등 3개 분야에서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시장조사기관인 SA가 최근 발표한 세계 휴대폰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처음 노키아를 제치고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또 스마트폰 시장에선 지난해 4분기 애플에 밀렸고, LTE 시장에서도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했다. LTE폰의 경우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LTE 시장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1분기에 57%의 점유율로 판매 입지를 재확인했다.

모토로라는 17%, LG전자는 13%의 점유율로 다음을 이었다. LTE폰의 지역별 판매량에서도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갤럭시S II LTE, 갤럭시S II HD 등 다양한 LTE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미국, 한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올 하반기 애플이 LTE를 지원하는 새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돼 LTE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총 9250만대를 판매해 1998년부터 줄곧 1위를 고수해 온 노키아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연환뉴스

기아차 올 해외시장서 221만대 판다

캐나다서 100여국 250명 참석 대리점 대회

기아차는 올해 해외시장에서 221만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14~17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페어몬트 퍼시픽 리프 호텔에서 '2012 전세계 대리점 대회'를 열어 중장기 판매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과 해외영업본부 임직원, 전세계 대리점 사장단 등 총 100여개국 250여명이 참석했다. 기아차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해외시장에서 총 221만대(해외생산분 포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와 5년내 글로벌 1류 브랜드 진입을 제시했다.

기아차는 해외시장에서 △신상품 지속적인 출시 △유로 2012, 2014 브라질 월드컵 등 글로벌 강화와 가치 제고 △디지털 역량 개선과 강화 △애프터 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의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객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는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100여개국 250여명의 대리점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전세계 대리점 대회'를 열었다. (기아차 제공)

현대·기아차 사내 발명왕 10억원 포상

현대·기아차는 20일 발명 특허를 많이 내는 연구원들에게 최대 10억원을 주는 등 국내 최고 '직무발명 특허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차량에 적용된 특허, 상품 향상, 성능 향상 등 특허 활용도를 평가해 발명자와 기여자에게 등급별로 발명 안전금 최대 2억원을 준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라이선스 계약 보상제'는 특허와 기술로 인한 로열티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발명자에게 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FTA 발효 두달...美 수출 11.3% 늘어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지 2개월 만에 대미 수출이 11.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934억 달러, 수입은 890억 달러로 각각 4%, 2.3% 줄었지만 대미 수출은 11억 8000만 달러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은 77억 3000만 달러로 2% 증가에 그쳤다.

관세청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EU의 재정위기 여파에도 FTA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입은 안정적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4억 5000만 달러로 전체 흑자(44억 달러)의 78.4%에 달했다.

대미 수출입은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입 증가율이 전체 품목의 증가율

을 웃돌면서 교역량 증대를 견인했다. 수출은 FTA 관세혜택을 본 자동차 부품(15%), 자동차(31%), 석유제품(42%), 고무제품(10%), 섬유류(7.4%) 등의 호조 덕에 19.4%나 증가했다.

/연환뉴스

로또복권 (제49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7 8 15 30 43	2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054,588,407	12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2,729,421	40
3	5개 숫자 일치	1,370,486	1,539
4	4개 숫자 일치	50,000	74,174
5	3개 숫자 일치	5,000	1,215,736

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 현장맞춤형 채용박람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본부장 이현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광주 첨단산업 내 호남권본부 8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2012 선도기업 현장맞춤형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날 채용박람회는 광주고용센터·광주지역중심센터·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연일산업·서산 등 18개 기업이 연구개발·사무직·생산직 1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에게는 심리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무료 취업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장 면접 구직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발전을 시작하려면 난방이 필수입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용! 도 태양열로~

주택용 태양광 3kW

태양열난방시스템

태양열수시스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영업관리 사원모집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	기존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적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코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분을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8호